

10代범죄 어른 뺨친다

동기 목적 없는 「우발성」 많아

국고생까지 「검은손」에 오염

10년새 23% 늘어

10대들이 각종 범죄에 범들어가고 있다. 최근들어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강절도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마약 등으까지 범져나면서 성인범죄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들 10대 범죄는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없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고 있고 충동적이며 반항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근들어 각종 항성신앙을 이나 본느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화상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각

종성범죄의 경우 그 가해와 피해연령층이 중학생과 심지어 국고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문제와 관련, 경찰은 청소년들이 성인용 히로폰을 대마초종에도 이미 노

출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성년범죄자들중엔 학생신분(89년 기준 34.1%)이거나 고교재학이상의 학력(52.2%)을 가진 10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무식해서 범죄에 빠지는다는

옛말을 무색케했다. 이같은 10대범죄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치관의 상실과 지나친 배금주의 패락주의의 만연변화의 사회적 악영향에 시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법률연구소 白尚畵 소장(57)은 10대범죄의 요인을 △가정교육의 부재 △ 사회기강의 문란 △ 진화위주의 교육체제로 요약하고 이를 막는 길은 「사회화교육」을 청소년이 소속된 모든 공공체가 하루빨리 건강성을 되찾는 것이라 고 말했다.

국고생殺人放火사건

범인인 10세 오빠

말다툼끝 부엌칼살해... 허위신고

소보리 지난날 30일 발생

한 서울麻浦大興동국교 성산인양화사건에 살해된 權美慶(9·S국교33년)의 오빠 權모(10·Y국교5년)의 오빠를 살해한 뒤 오빠수행으로 위장한 자각인양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麻浦경찰서는 6일 權군의 부모와 담임교사들의 의뢰아래 權군을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權군으로 부터 범행사실인양을 자백 받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군은 지난날 30일 오후 4시반경 하교길에 친구 盧모(10) 등 2명과 함께 오랑실에 서 놀다 귀가하자 혼자 집을 보고있던 동생美慶양이 『왜냐와 함께 놀아주지 않느냐』며 방안에 있던 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일말음을 손톱으로 할퀴자 이에 격분, 부엌에 있던 식칼로 美慶양의 배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했다는 것.

權군은 이어 사건을 외 부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전기장판의 전선을 동생의 목을 감고 이를로 덮어, 심상치 않은 불을 일으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 사건지후 權군은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탄 집배원차량의 40대남자가 집에 들어와 전화선으로 자신과 동생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權군이 종의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보복사건으로 보고 주 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웃주민들에게 목적자가 전혀 없고 △ 범인의 인상차이에 대한 權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사건지후 權군이 곧바로 사건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의 대해 의문을 갖

또한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는 횡령, 장물사기(기) 출고있는데 반해 강절도(살인)강도(강간)범죄(아니 폭력범죄)형상해(공갈협박)은 늘고 있어 10대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장년법률 32.5%, 폭력범죄는 20.7% 증가했으나 재산범죄는 7.5%가 감소했다.

이같은 청소년범죄는 최

고 權군을 범인으로 지목, 조사를 해왔다.

경찰조사결과 權군의 부

모는 집무실에서 식료품점을 하며 집을 자주 비워왔으며 權군은 지능이 낮고 학업성적이 나빠 학교를수반에 편성됐고, 여동생이 자신의 말을 잘듣지않는다. 는 이유로 자주 다뤘었다.

權군이 이날 경찰에서 『범행지후 「집배원이 사람 을 죽이려 날아갔으나 불 잡히지않았다』는 학교친구의 말이 기어나 집배원에

의한 살인방화사건으로 위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權군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인 점을 들어 權군을 불구속송치기로 하고 6일 훈방했다.

한기상대 女高生포행 10代8명에 兇장 서울남부경찰서는 7일 본느를 출몰하고 화자상대에 빠져 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한 曹모(17·서울S 화원생 서울冠岳구 新林3

모(10) 10대8명의 대항우 해화화물집단면 우만및 특수강제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91.10.7